

한국인 이름의 최근 동향 및 특징에 관한 사회명명학적 연구*

이서라*·강현석**

Abstract

Lee, Seo-Rah & Kang, Hyeon-Seok. (2023). "A Socio-onomastic Study of the Rec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s' Nam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4), 121-147. This study examines the latest trends and changes in Korean naming practice within the socio-onomastic framework. Using the data from the websit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present research analyzes the linguistic features of baby names registered between 2010 and 2021 and identifies how these features reflect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study focuses on popular names (and their first and last letters), syllable structure, types of the coda consonant, and unisex names. The most preferred names for males and females were '서준 (Seo-Jun)' and '서윤 (Seo-Yun)', respectively. Both male and female names showed a preference for '지(Ji)' as the first letter of the name. '준 (Jun)' and '은 (Eun)'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second letter for male names and female names, respectively. For both male and female names, the syllable structure without a coda is increasing while the CVC structure is rapidly decreasing. For both genders, 'ㄴ' is the coda consonant with the highest frequency. Male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75159).

* First Author: Seo-Rah Lee, Visiting Professor, English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 Chungnam 31116, Korea; Email: leesurah@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Hyeon-Seok Kang, Professor, English Department, Dankook University; 119 Dandaero, Dongnamgu, Cheonan, Chungnam 31116, Korea; Email: hskang1@dankook.ac.kr

Received 31 October 2023; Reviewed 24 November~11 December 2023; Accepted 19 December 2023.

names were found to end with a coda such as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but the use of obstruents ‘ㄱ’, ‘ㅂ’ is sharply decreasing. For female names, ‘ㄴ, ㄷ, ㄹ, ㅇ’ were almost categorically used for the final coda. The study also finds that ‘unisex nam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1970s in Korea.

Keywords: Koreans’ naming practice, popular names, syllable structure of names, types of the coda consonant, unisex names.

1. 들어가는 말

사람의 이름은 특정 개인을 지시하는 고유명사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며 개인의 정체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름은 의미적 요소와 음성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와 시대 그리고 언어에 따라 명명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은 고대에는 거의 성(姓)이 없는 고유어 이름을 사용하다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상류 계층부터 점차로 한자어로 된 성과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17세기 이후에야 절반 이상의 한국인이 성을 갖게 되었고(정경일 2019), 여성과 중·하위 계층의 대부분은 근대까지도 고유어 이름을 사용했다고 추정되고 있어서(김문창 1991; 문금현 2003), 현대의 성과 한자어 2음절 형식의 이름이 보편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과거 세대에는 향렬과 사주 등을 고려해 이름을 짓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요즘 이름보다는 음절 구조가 복잡하고 음성적으로 딱딱한 이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최근에는 음절 구조가 간결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어 과거에 지어진 이름과 음성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고, 성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중성적인 이름¹⁾도 증가 추세에 있다. 명명 행위는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사회문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선호하는 이름의 의미나 음성·음운적 특징은 특정 국가나 문화권의 특성을 보여주며, 명명 추세의 변화는 또한 특정 문화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

1) 중성적 이름은 남녀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뜻한다. 구체적 정의에 대해서는 ‘4.6. 중성적 이름의 증가’를 참조하기 요망.

현대 한국인의 이름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한연주(1994), 나은미(2003), 강희숙·양명희·박동근(2012)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처음 두 연구는 조사 범위나 표본의 크기 그리고 결과 논의에서 제한적이었던 반면, 강희숙 외(2012)는 법원 행정처의 도움을 얻어 전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약 18만 명의 한국인 인명 자료를 바탕으로 이름을 분석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195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10년을 단위로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을 분석하고, 전체 자료를 통합해서 한국인 이름의 어종(語種), 음절수, 그리고 음절 말음(末音)²⁾을 분석하여 한국인 이름의 특성과 변화 추세를 밝히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인 인명은 다른 문화권의 인명처럼 사회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도 변화를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명 자료를 대중에게 개방하면서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규모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 이름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 이름 명명의 최근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이 연구 공백이 본 연구의 주된 동기이다.

본 연구는 특히 2010년도에서 2021년까지 출생 신고된 한국인 이름을 분석해서 최근 선호되는 남녀 인명을 밝히고, 선호되는 이름의 음성·음운적 특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근래에 뚜렷이 관찰되는 중성적 이름의 증가 양상을 또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인 강희숙 외(2012)의 결과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하고 그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음절 말음 분석은 이름(given name)의 음절별로 음절 말음을 분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음절로 된 '민수'라는 이름은 '민'의 경우 'ㄴ'이 음절 말음이고 '수'의 경우는 모음인 'ㅜ'가 음절 말음이다.

2. 선행 연구 및 연구 목적

현대 한국인의 이름을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한연주(1994), 나은미(2003), 강희숙 외(2012), 정경일(2019)이 대표적이다. 이 중 한연주(1994)는 인천에서 출생한 혹은 인천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3,162명의 이름 특징을 남녀별,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나은미(2003)은 194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출생한 276명의 이름을 세대와 성별로 나누어 이름에 흔히 쓰이는 한자와 음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후자는 작은 표본을 분석하였지만, 남자의 경우 40년대는 ‘창(昌/蒼)’자, 60년대는 ‘상(尙/相)’자, 80년대는 ‘현(炫/賢/鉉)’자, 90년대는 ‘준(俊/準)’자가 이름에 가장 많이 쓰였다고 분석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40년대는 ‘자(子)자, 60년대는 ‘숙(淑)’자, 80년대와 90년대는 ‘지(智/志/之)’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보고한다. 또한 이름의 종성에서 남녀 이름의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특히 남자 이름에는 저해음 ‘ㅂ’이 사용되는 반면 여자 이름에는 이 저해 자음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관찰하였다.

강희숙 외(2012)는 앞서 소개한 대로 법원 행정처의 도움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서 확보한 대규모 인명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 이름을 분석한 첫 연구이다. 이 연구는 대도시 지역과 군 지역에서 출생한 약 18만 명의 남녀 이름을 토대로 해서, 195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10년 단위로 가장 인기 있던 이름을 분석하고, 한국인 이름의 어종, 음절수, 그리고 음절 말음을 또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남자의 가장 흔한 이름은 50년대는 영수, 70년대는 정훈, 90년대는 지훈, 2000년대는 민준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50년대는 영숙, 70년대는 은영, 90년대는 민지, 2000년대는 유진으로 분석되었다.

어종 면에서는 한자 이름이, 음절수 면에서는 2음절 이름이, 각각 약 98%로 나타나 전체 이름 중 압도적 비중을 보였다. 남녀 인명을 비교해 보면, 여자 이름은 상대적으로 고유어와 외래어 비중이 남자 이름보다 높았고, 여자 이름이 상대적으로 남자 이름보다 다소 길게 나타나서 1음절 이름의 비율은 남자 이름이, 3음절 이상의 이름은 여자 이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각 음절의 말음 분석에서는 여자 이름은 모음으로 끝나는 비율(37%: 예; (선)희)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ㄴ’(34%: 예; (지)민), ‘ㅇ’(14%: 예; (지)영), ‘ㄱ’(10%: 예; (미)숙)이었던 반면, 남자 이름은 ‘ㄴ’(36%: 예; (성)준)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모음(29%: 예; (건)우), ‘ㅇ’(13%: 예; (민)성), ‘ㄱ’(12%: 예; (영)식)의 순서를 보여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이 논문은 남녀 이름의 음절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데, 이 논문 54쪽의 <표 14>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남자 이름은 개음절(open syllable)의 비율이 29%, 폐음절(closed syllable)은 71%였고, 여자 이름은 개음절은 37%, 폐음절은 63%여서 음절 구조에서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정경일(2019)은 이름의 의미와 기능, 이름의 역사, 명명 방식, 이름의 종류 등을 논의한 한국인 이름에 대한 종합적 연구이다. 이 책은 ‘남녀 이름의 음성적 차이’라는 절(pp. 164-168)에서 남녀 이름자 각각 26개의 작은 표본을 토대로, 남녀 이름의 음절 구조와 종성/음절말 자음 사용에서의 차이를 기술한다. 먼저 음절 구조에 대해서는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보다 개음절 이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많다고 하며³⁾, 종성에 대해서는 여자 이름이 종성이 없는 이름자가 많아서 남자 이름보다 좀 더 부드럽게 들리는 경향이 있다고 관찰한다.

위에서 논의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첫째, 한국인 인명은 다른 나라의 인명과 같이 명명 방식과 추세에 항상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둘째, 한국인 남녀의 이름에는 음성·음운적 특성에서 성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한국인 남녀 이름의 음성·음운적 특성의 분석에 있어서 자료 표본이 너무 작든지, 분석 범위나 분석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또한 남녀 이름의 음성·음운적 특성도 시기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다.

3) 정경일(2019)의 166쪽 <표 13>에 주어진 수치를 바탕으로 산정해 보면, 개음절 비율은 여자 이름이 42%(11/26), 남자 이름이 31%(8/26)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은 여자 이름이 38%(10/26), 남자 이름이 23%(6/26)이다.

강희숙 외(2012)는 다른 세 연구와는 달리 비교적 대규모의 이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여러 가지 의미 있고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희숙 외(2012)를 보완하고 한국인 이름의 최근 명명 추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자료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대법원의 정보 공개 서비스를 통해 입수한 약 3백 8십만 명(〈표 1〉 참조)의 한국인 이름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최근에 인기 있는 한국인 남녀 이름은 어떤 것이며, 선호되는 첫 글자와 끝 글자는 어떤 것인가?
2. 정경일(2019: 166)에 따르면 한국인 남녀의 이름은 음절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는 여전히 발견되는가?
3. 나은미(2003)와 강희숙 외(2012)에서 나타난 남녀 이름의 음절말 자음의 유형은 최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4. 강희숙 외(2012)에서 나타났던 1음절과 3음절 이름의 성차는 최근 이름에도 관찰되는가?
5.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는 중성적 이름의 증가(He 2020; Kürschner 2018; Loveday 2013)가 한국인 이름에서도 나타나는가?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목적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출생 신고된 한국인 남녀의 명명 동향과 이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 정보 공개 사이트⁴⁾에 해당하는 기간의 자료와 추가 분석에 필요한 인명 자료를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2010년에서 2021년까지 출생 신고된 이름 중 남녀 연도별 상위 3,000위까지의 이름과 이름의 빈도, 그리고 1940년에서 2021년까지 출생 신고된 이름 중 남녀 연도별 상위 500위까

4) 법원 정보 공개 사이트(<https://open.scourt.go.kr/>)는 법원과 관련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름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전자 우편을 통해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다.

지의 이름과 이름의 빈도였다.⁵⁾

한국인 이름의 최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2010년에서 2021년까지 등록된 남녀 각 상위 500위까지의 이름과 빈도가 주된 분석 대상이었다. 상위 500위까지의 이름은 이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약 81%(<표 1> 참조)까지에 주어진 이름이므로, 본 연구의 주 자료가 최근 한국인이 선호하는 이름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남녀 출생아 수와 출생 신고 상위 500위까지 이름의 누적 빈도

2010년~2021년	남자	여자	합계
출생아 수	2,394,477명	2,268,230명	4,662,707명
1~500위까지 이름의 누적 빈도 (비율)	1,833,814명 (77%)	1,962,105명 (87%)	3,795,919명 (81%)

(출생아 수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총 12년간의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곱 가지, 즉 1) 남녀 이름의 동명 빈도, 2) 남녀 이름의 첫 글자와 끝 글자, 3) 남녀 이름의 음절 구조, 4) 남녀 이름의 음절말 자음, 5) 음절 수, 6) 중성적 이름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이름의 음절 구조 및 음절말 자음의 경우는 12년 기간 내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4년 단위로 구분하고 각 하위 기간의 자료를 합산 후 분석하였다(<표 5> 참조). 음절 구조의 분석은 이름의 첫 음절과 끝 음절 모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음절수의 경우, 3음절 이름이 상위 500위권 이름 자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상위 3,000위권 이름 자료로 대상을 넓혀서 분석하였다. 음절수의 분석 역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12년을 4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 부부나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 신고가

5) 상위 500위까지의 이름이란 문자 그대로 연도별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1위부터 500위까지의 이름을 말하며, 이름의 빈도란 각 순위에 해당하는 동일 이름의 수효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21년에 출생 신고된 남아 이름 가운데 1위 이름은 '이준'이며, 이 이름의 빈도는, 즉 '이준'이라는 이름으로 출생 신고된 남아의 수효는 2,687명이다. 같은 해 출생 신고된 이름 가운데 500위 이름은 '진후'이며 이름의 빈도는 36명이다. 상위 3,000위까지의 이름과 빈도는 연도별 이름 순위 1위부터 3,000위까지의 이름과 그 이름의 빈도를 말한다.

이전 시기보다 급격히 늘어서 3음절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 중 남자는 약 94%, 여자는 약 80%가 외국인의 이름으로 추정되었다(〈표 10〉 참조).⁶⁾ 따라서 3음절 이름은 먼저 어중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4년을 단위로 한 추세 분석이 이루어졌다. 중성적 이름은 시대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2021년 자료에 1940년~2009년의 남녀 상위 500위까지의 이름 자료를 추가해서 조사하였으며, 연도별로 동일 인명의 다수 사용 성별과 소수 사용 성별 간 사용비가 10:1(비율로 하면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중성적 이름으로 분류하고, 매 10년 별로 중성적 이름으로 명명된 출생아의 전체 출생아 대비 비율을 계산해서 중성적 이름 사용의 시기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최근 이름의 동명 빈도 및 변화 추세

2010년~2021년 기간에 출생 신고 시 등록된 이름 중 가장 인기 있던 남녀 이름을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2010년~2021년 기간 중 가장 인기 있던 남녀 이름의 동명 빈도 (10위까지)

순위	남자		여자	
	이름	빈도	이름	빈도
1	서준	32,973	서윤	29,795
2	민준	32,704	서연	28,829
3	도윤	28,846	지우	25,514
4	예준	25,140	하윤	25,233

6)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수는 약 225만 명이며, 그중 재외 동포가 약 50만 명, 외국인 근로 인력이 약 45만 명, 결혼이민자가 약 17만 명, 유학생이 약 20만 명, 그리고 영주 자격 외국인인 약 18만 명이었다(법무부, 2023). 이들 외국인 부부 사이에 출생한 아이와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 간에 출생한 아이 모두 출생 신고와 이름 등록이 가능하다. 3음절 이름에 대한 자세한 통계수치는 ‘4.5 음절수 유형과 변화 추세’를 참조하라.

5	하준	24,718	서현	23,614
6	주원	24,686	하은	22,886
7	시우	24,274	민서	21,795
8	지호	22,262	지유	21,486
9	지후	20,059	윤서	19,816
10	준우	19,939	수아	18,540

〈표 2〉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한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남자 이름은 ‘서준’이며, 다음은 ‘민준’, ‘도운’이다. ‘민준’은 2000년대, 즉 2000년~2009년 기간에도 동명 빈도 1위(강희숙 외 2012: 43; 정경일 2019: 157)를 차지했던 남자 이름으로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서준’과 더불어 ‘민준’, ‘예준’, ‘하준’, ‘준우’가 모두 동명 빈도 10위 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남자 이름자로 ‘준’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명 빈도 10위 내 이름은 ‘민준’을 제외하면 두 음절이 모두 모음으로 끝나거나(시우, 지호, 지후) 적어도 한 음절이 모음으로 끝난다(나머지 일곱 이름). 모음이 아닌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즉 음절말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이 자음은 예외 없이 공명 자음 ‘ㄴ’이어서 과거에 지어진 남자 이름보다 발음하기 쉽고 어감이 부드럽다.

여자 이름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서윤’이며, ‘서연’, ‘지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서윤’, ‘서연’, ‘서현’, ‘민서’, ‘윤서’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여자 이름자로는 ‘서’가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이름과 마찬가지로, 두 음절이 모두 모음으로 끝나거나(지우, 지유, 수아) 적어도 한 음절은 모음으로 끝나며(나머지 일곱 이름), 음절말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모두 공명 음인 ‘ㄴ’이 사용되었다.

앞서 제시한 〈표 1〉을 보면, 2010년~2021년 기간 동안 출생아 수는 남아가 더 많은데 상위 500위까지의 동명 이름에 대한 누적 비율은 남아가 77% 여아가 87%여서 여아가 10% 더 높다. 이는 500위까지 이름은, 즉 일반적으로는 여아의 이름이 남아의 이름보다 중복 정도가 더 높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표 2〉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이름 10개의 경우는 ‘4위 예준과 하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자 이름의 중복 비율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강희숙 외(2012: 47)에 따르면, 2000년대까지는 동명 빈도 상위 10위권 이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중복 비율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와는 반대 현상을 보인다.

4.2. 남녀 이름 첫 글자와 끝 글자의 빈도와 변화 추세

먼저 남자 이름에 선호되는 개별 이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위 500위 이름에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분석하였다. <표 3>은 남자 이름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첫 글자와 끝 글자를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한 것이다. 남자 이름에 가장 선호되는 첫 글자는 ‘지’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남아 이름이 ‘지훈’(강희숙 외 2012: 43; 정경일 2019: 157)이었는데, 최근에도 첫 글자로 ‘지’(<표 2>의 ‘지후’ ‘지호’ 참조)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 ‘준’, ‘승’을 제외하면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구조, 즉 개음절로 구성되어 과거보다 단순한 음절 구조를 가진 첫 이름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남자 이름의 첫 글자와 끝 글자로 선호되는 이름자와 빈도 (10위까지)

순위	첫 글자	빈도	끝 글자	빈도
1	지	153,181	준	238,627
2	민	116,372	우	228,973
3	시	106,400	현	114,350
4	준	100,000	호	98,864
5	도	90,661	윤	87,448
6	승	79,953	민	78,809
7	서	77,030	원	75,966
8	태	72,217	성	57,372
9	하	68,365	진	54,876
10	재	64,244	후	53,489

남자 이름에 가장 선호되는 끝 글자는 ‘준’이며, ‘우’도 그에 못지않게 인기 있는 글자로 나타났다. ‘호’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자 이름의

끝 글자로 계속 인기가 있었는데(정경일 2019: 161), 이 추세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글자와 끝 글자로 공히 인기 있는 이름자는 ‘준’과 ‘민’으로 양쪽에서 10위 내에 포함되었다. 첫 글자와 달리 끝 글자는 개음절과 폐음절로 구성된 것이 각각 3개와 7개여서 후자가 주류였다.

여자의 첫 이름자로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지’가 가장 많이 쓰였으며, ‘민’을 제외한 모든 글자가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을 갖는다(〈표 4〉 참조). 남녀 이름에서 공히 첫 글자로 ‘지’가 가장 선호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훈’이 가장 인기 있는 남아 이름이었던 것처럼, 1980년대 여자 이름으로는 ‘지혜’가 가장 선호되는 이름이었다(강희숙 외 2012: 46). ‘지’로 시작하는 이름의 인기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지속되어, 두 시기의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열 개 중 1990년대에는 다섯(지은, 지혜, 지현, 지영, 지원), 2000년대에는 둘(지원, 지민)을 차지하였고(정경일 2019: 157 참조), 이 추세가 최근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4〉 여자 이름의 첫 글자와 끝 글자로 선호되는 이름자와 빈도 (10위까지)

순위	첫 글자	전체빈도	끝 글자	전체빈도
1	지	191,168	은	162,781
2	서	179,255	아	161,054
3	하	135,249	윤	149,211
4	예	122,276	연	123,407
5	다	95,942	서	96,219
6	채	82,641	현	88,409
7	소	82,041	원	84,885
8	유	79,146	울	70,446
9	수	77,940	린	69,547
10	민	69,131	민	58,977

여자 이름에서 가장 선호되는 끝 글자는 ‘은’이며, ‘아’가 그 뒤를 이었다(〈표 4〉 참조). ‘은’은 1980년대부터 여자 이름의 끝자리에 많이 쓰이다가 2000년대부터는 이 자리에 가장 선호하는 이름자가 되었으며(강희숙 외 2012: 52) 현재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는 2000년대까지 10위권 밖

에 있다가 최근에 급격히 여자 이름의 끝자리에 선호되고 있다. 첫 글자와 끝 글자로 공히 인기 있는 이름자는 ‘서’와 ‘민’으로 양쪽에서 10위 내에 포함되었다. 여자 이름에서도, 끝 글자는 개음절과 폐음절로 구성된 것이 각각 2개와 8개여서 첫 글자와는 반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남녀 이름에 공히 인기 있는 첫 글자는 ‘지, 민, 서, 하’이며, 끝 글자는 ‘윤, 현, 원, 민’이었다. 특히 ‘민’은 남녀 이름 모두의 첫 글자와 끝 글자에서 인기 있는 이름자로 분석되었다. 앞서 기술했듯이 남녀 이름 모두 끝 글자가 첫 글자보다 폐음절을 갖는 비율이, 즉 음절 구조가 복잡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정경일(2019: 157)이 ‘〈표 8〉 시대별 이름 사용 현황’에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194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시기별 1위~10위의 인기 이름을 분석해 보면, 1960년대까지는 남녀 이름 모두 첫 글자의 음절 복잡도가 더 높아서 지금과는 반대 경향을 보였고, 남자 이름은 2000년대까지 이 추세가 이어졌다. 반면 여자 이름은 1970년대부터 두 번째 이름자가 첫 번째 보다 음절 구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남자 이름도 여자 이름과 같은 추세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4.3. 남녀 이름의 음절 구조 차이와 변화 추세

음절 구조는 이름이 주는 청각적 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절말 자음의 사용 여부와 전체 음 중 모음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름이 부드럽고 여성적으로 들리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Ackermann & Zimmer 2021).

〈표 5〉 남자 이름자의 음절 구조 비율⁷⁾ 및 변화 추세⁸⁾ (2010년~2021년)

구조	연도	2010-2013	2014-2017	2018-2021
모음(V)		10.1% (141,030)	12.1% (155,374)	15.2% (141,829)
자음+모음(CV)		28.9% (405,504)	31.7% (408,581)	34.6% (323,123)
모음+자음(VC)		13.2% (184,090)	14.8% (190,243)	15.8% (146,733)
자음+모음+자음(CVC)		47.8% (670,787)	41.4% (533,851)	34.4% (321,834)

〈표 5〉와 〈표 6〉은 2010년~2021년의 연도별 상위 500위권 남녀 인명 자료를 토대로 이름자의 음절 유형의 비율과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2018년~2021년의 최근 자료를 보면, 남녀 인명의 이름자는 음절 유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 이름은 남자 이름보다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의 음절 유형 비율이 높고 ‘자음+모음+자음’의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2018년~2021년 기간만이 아니라 앞의 두 기간에도 일관되게 관찰된다. ‘자음+모음+자음(CVC)’ 음절 구조는 모음의 비율이 낮아서 다른 음절 구조보다 청각적으로 딱딱하게 혹은 강하게 들릴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이 때문에 남녀 이름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자 이름의 경우, ‘자음+모음+자음’ 구조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구조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구조(V와 CV), 즉 개음절 구조의 비율은 2010년~2013년의 39%에서 2018년~2021년의 49.8%로 10.8%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폐음절 구조(CVC와 VC)의 비율이 그만큼 감소했다. 과거에는 전통 방식에 따라 향렬이나 사주를 고려한 이름이 많이 사용되어(양명희 2012) 음절이 복잡해서 부르기가 어렵고 딱딱한 이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전통적 명명 방식의 비율이 줄고 부르고 듣기 좋은 이름을 지으려는 경향이 생겼으며,

- 7) 연도별로 상위 500위권 이름의 첫 글자와 끝 글자의 자료를 합한 후 이를 다시 4년 단위로 통합한 다음 음절 구조의 유형별 비율을 구했다. 500위권 이름 중 유일하게 3음절 이름이었던 ‘다니엘’(남자)과 ‘에스터’(여자)는 외래어 이름이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 8) 2010년에서 2021년으로 이행하면서 거의 매년 출산수와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표 5〉, 〈표 6〉 등에서 비율은 증가하는데 괄호 안의 빈도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여럿 관찰된다.

이러한 추세가 개음절 구조가 남자 이름에 증가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표 6〉 여자 이름자의 음절 구조 비율 및 변화 추세 (2010년~2021년)

구조 \ 연도	2010-2013	2014-2017	2018-2021
모음(V)	12.3% (190,503)	14.9% (204,808)	18.2% (177,776)
자음+모음(CV)	43.2% (666,644)	44.2% (608,361)	45.4% (444,042)
모음+자음(VC)	24.9% (384,740)	24.7% (339,282)	22.7% (221,875)
자음+모음+자음(CVC)	19.6% (302,986)	16.2% (223,374)	13.8% (135,077)

여자 이름자의 음절 유형(〈표 6〉 참조)을 남자와 비교하면, 개음절 구조(V와 CV)의 비율이 남자 이름에 나타난 수치보다 항상 높게 나타난다. 개음절 구조의 비율은 2010년~2013년의 55.5%에서 2018년~2021년의 63.6%로 8.1%가 증가해 남자 이름과 같은 추이를 보이지만 증가 정도는 남자의 10.8%에 비해 조금 낮다. 강희숙 외(2012: 54)는 1950년대~2000년대의 통합된 이름 자료를 토대로 모음이 여자 이름의 음절 말음 중 가장 높은 비중(36.8%)을 차지하고, 남자 이름은 ‘ㄴ’(35.6%)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28.7%)고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는 여자 이름자가 남자 이름자보다 개음절 구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향은 지금도 유효하다(남자 49.8%, 여자 63.6%; 2018년~2021년 기준). 현재 관찰되는 추세는 남녀 이름 모두에 개음절 구조가 늘고 있고 남자 이름은 이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남녀 이름 모두 음절이 간소화되고 부드럽게 들리고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4. 음절말 자음의 유형과 변화 추세

음절 구조가 폐음절인 경우, 음절을 종결하는 자음의 유형도 이름의 청각적 인상과 조음 난이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채서영 2004). 공명 자음이 저해음보다 부드럽고 여성적으로 인식되는 것

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된다(Kawahara et al. 2018 참조). <표 7>과 <표 8>은 2010년~2021년의 연도별 상위 500위권 남녀 인명 자료를 토대로 이름자에 사용된 음절말 자음의 유형과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표 7> 남자 이름에 사용된 받침/음절말 자음의 유형과 변화 추세 (2010년~2021년)

자음	연도	2010~2013	2014~2017	2018~2021
ㄴ		73.4% (359,937)	77.9% (353,001)	80.0% (254,260)
ㅇ		13.6% (66,576)	9.9% (45,045)	7.2% (22,840)
ㄱ		7.1% (34,743)	4.2% (19,158)	2.4% (7,737)
ㄹ		4.7% (23,160)	6.2% (28,311)	7.5% (23,841)
ㅁ		1.3% (6,153)	1.7% (7,675)	2.9% (9,284)
ㅂ		0.2% (1,366)	0.1% (620)	0% (176)
ㅈ ⁹⁾		0% (0)	0% (0)	0% (51)

남자 이름의 받침으로서 압도적 비율로 사용되는 것은 ‘ㄴ’이며, ‘ㄴ’의 사용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ㄹ’과 ‘ㅁ’의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ㅇ’, ‘ㄱ’, ‘ㅂ’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ㅈ’은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다.

‘ㄱ’과 ‘ㅂ’은 과거에 남자 이름의 음절말에 상대적으로 선호되어 사용된 자음이었는데(강희숙 외 2012: 54), 둘 다 저해음으로서 청각적으로 딱딱하고 남성적인 인상을 준다. 여성 이름에 상대적으로 선호되던 ‘ㅁ’(강희숙 외 2012: 54)이 남자 이름에 증가하고, ‘ㄱ, ㅂ’이 줄어드는 현상은 남성적인 이름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예전보다 남자의 마초적 이미지에 대한 호감이 감소한 것과 연관될 수 있으며, 성구분을 드러내지 않는 중성적 이름을 선호하는 일부 부모의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9) ‘ㅈ’은 음성적으로 [ㄷ]으로 실현된다. 2019년에 ‘한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아 51명의 출생이 등록되어 이 해에만 ‘ㅈ’이 받침인 이름이 상위 500위 내에, 즉 487위에 진입하였다.

〈표 8〉 여자 이름에 사용된 받침/음절말 자음의 유형과 변화 추세 (2010년~2021년)

연도 자음	2010-2013	2014-2017	2018-2021
ㄴ	75.8% (395,659)	76.2% (339,135)	75.7% (223,564)
ㅇ	12.5% (65,112)	8.3% (37,054)	6.3% (18,468)
ㄹ	7.8% (40,611)	11.5% (51,023)	13.1% (38,666)
ㅁ	3.9% (20,618)	4.0% (17,872)	4.9% (14,580)

연도별로 상위 500위 여자 이름의 음절말 자음으로는 ‘ㄴ, ㅇ, ㄹ, ㅁ’ 총 4가지 공명음만 관찰되었으며 남자 이름과 마찬가지로 ‘ㄴ’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8〉 참조). 이러한 결과는 강희숙 외(2012: 54)의 결과¹⁰⁾와 달리 ‘ㄱ, ㅂ’이 최근 여자 이름에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면서 여자 이름의 음절말 자음 유형이 과거보다 간소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ㄹ’은 과거 남자 이름에 상대적으로 많이 쓰였는데¹¹⁾, 최근에는 여자 이름의 받침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을’이 여자 이름의 끝 글자로 많이 쓰이는 것(〈표 4〉 참조)과도 관련이 있고, 고유어 이름과 외래어 풍의 이름 중 받침에 ‘ㄹ’을 가진 이름자의 증가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

강희숙 외(2012)의 자료를 재분석하면 ‘ㄴ’은 남자와 여자 인명의 음절말 자음으로 각각 50%와 54%의 비율로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남녀 이름 모두에 75% 이상의 비율로 사용되며, 이 관점에서 이 자음은 지금 한국 남녀 이름의 전형적인 음절말 자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 이름의 음절말 자음으로 ‘ㅇ’이 감소하고 ‘ㄹ, ㅁ’이 증가하는 추세는 남녀 이름에 공통으로 나타

10) 강희숙 외(2012)에서 분석된 1950년대~2000년대의 통합 인명 자료에서, 여자 이름의 음절말에 0.1% 이상의 빈도로 쓰인 자음은 ‘ㄴ, ㅇ, ㄱ, ㅁ, ㄹ, ㅂ’ 총 여섯이었으며 남자 이름도 동일했다. 이 분석에서 ‘ㄱ’과 ‘ㅂ’은 음절 말음으로 남자에게는 각각 12.4%와 1.6%, 여자에게는 각각 10.3%와 0.2%의 비율로 사용되어 남자 이름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

11) 각각 10과 같은 자료의 분석에서 음절 말음으로 ‘ㄹ’이 사용된 비율은 남자가 6.3%, 여자가 1.6%였다.

12) 참고로, 2021년도에 등록된 여자 이름을 분석한 결과, ‘ㄹ’을 받침으로 한 이름의 수효는 총 8,925개였고, 그 중 ‘을’로 끝나는 이름이 4,790개(54%)였다. 고유어 인명 중 ‘ㄹ’을 받침에 가진 이름은 ‘가을, 걸, 다술, 별, 셋별, 설, 소을, 술, 슬, 여을, 하늘, 한걸, 한별’ 등이며, 외래어와 유사한 이름은 ‘하엘, 이엘, 나엘’ 등이다.

나는 변화이다. ‘ㅇ’은 공명 자음 중 하나여서 한국인 인명에 사용 빈도가 감소하는 것은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 자음이 연구개음이어서 치경음 ‘ㄴ’이나 양순음 ‘ㅁ’보다 조음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 음이 [+grave] 자질을 가져서 상대적으로 남성적 느낌을 주는 점(Ohala 2004)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음절말 자음으로 저해음 ‘ㄱ, ㅂ’을 사용하는 것은 여자 이름에서는 이미 거의 사라졌고 남자 이름에서도 그 비율이 현저히 줄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인 인명이 발음하기 쉽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변화하는 경향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표 7>과 <표 8>에 나타난 분석 결과는 한국인 남녀 이름이 음절말 자음의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5. 음절수 유형과 변화 추세

한국인 이름은 대부분이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2음절 이름은 한국인 이름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음절 이름과 3음절 이상의 이름은 성차를 보이는데, 1950년대~2000년대의 통합된 인명 자료를 토대로 한 강희숙 외(2012: 53)는 1음절은 상대적으로 남자 이름에 많고, 3음절 이상은 상대적으로 여자 이름에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¹³⁾ 이러한 경향은 영국, 미국, 독일 등 서양권에도 나타나서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보다 평균적으로 음절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Ackermann & Zimmer 2021; Crystal 1993; He 2020).

<표 9>는 2010년~2021년에 출생 신고된 상위 3,000위권 남녀 이름을 음절수 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앞서 연구 방법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상위 500위권 이름 자료에는 3음절 이름¹⁴⁾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상위 3,000위권¹⁵⁾

13) 강희숙 외(2012)의 자료에서, 1음절 이름의 비율은 남자가 1.57%, 여자가 0.82%로 남자의 1음절 이름이 여자보다 약 2배가량 많았으며, 3음절 이름의 비율은 남자가 0.07%, 여자가 0.26%로 여자의 3음절 이름이 남자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았다.

14) 앞서 기술하였듯이, 상위 500위권 이름 자료에 나타난 3음절 이름은 ‘다니엘(남자)’과 ‘에스터

으로 범위를 넓혀서 분석하였다.

〈표 9〉 상위 3,000위권 남녀 이름의 음절수 별 비율과 빈도 (2010년~2021년)

음절 \ 성별	남자	여자
1 음절	2.38% (54,283)	1.42% (31,408)
2 음절	97.49% (2,219,186)	98.28% (2,177,724)
3 음절	0.12% (2,812)	0.21% (4,757)

남녀 모두 2음절 이름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1음절 이름의 경우, 남자는 2.38%, 여자는 1.42%로 남자 이름의 비율이 더 높고, 3음절 이름은 남자가 0.12%, 여자가 0.21%로 여자 이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소개한 강희숙 외(2012: 53)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앞서 연구 방법에서 기술했듯이, 3음절 이름의 경우 외국인 부부나 외국인과 한국인 부부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이름 비율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서 어중 분석(〈표 10〉 참조) 후 한국인 이름¹⁶⁾만을 대상으로 다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여자) 뿐이었다.

- 상위 3,000위권 이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태어난 출생아(〈표 1〉 참조) 중에서 남아의 약 95%(2,276,422명)와 여아의 약 98%(2,215,796명)에 주어진 이름이다.
- 한국인 중에는 외국어나 외래어 이름을 쓰는 경우도 더러 있으나 개별 파악이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나 외래어 이름은 모두 외국인 이름으로 분류하였다. 남자 이름 중 ‘벤자민’, ‘윌리엄’, ‘저스틴’, ‘하루키’ 같은 이름과 여자 이름 중 ‘레이첼’, ‘미즈키’, ‘쓰위엔’, ‘클로이’ 같은 이름이 외국인 이름으로 분류된 예이다. 그 외 나머지 이름은 한국인 이름으로 분류했으며, ‘로건박’, ‘수지갑’, ‘박레인’ 같이 외국어 이름에 한국인 성을 덧붙인 3음절 이름은 부부 중 하나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인 이름으로 분류하였다(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만 한국인이어도 자녀는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표 10〉 상위 3,000위권 남녀 3음절 이름의 어종 비율과 빈도 (2010년~2021년)

남자		여자	
0.12% (2,812)		0.21% (4,757)	
외국어/외래어	한국어	외국어/외래어	한국어
94% (2,646)	6% (166)	80% (3,791)	20% (966)

3음절 이름에서 한국인 이름만 대상으로 성차를 분석해도, 남아 이름은 166개, 여아 이름은 966개로 3음절 여자 이름이 같은 음절수의 남자 이름보다 약 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과 서양권 국가의 기존 연구와 아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¹⁷⁾ 외국인 이름을 포함한 3음절 이름 전체보다 한국인 이름만 분석 대상으로 했을 때 성차가 더 커진 이유는 외국인 이름 중에는 남자 이름에도 3음절 이름이 흔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표 11〉은 남녀 1음절과 3음절 이름이 2010년~2021년에 보인 비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3음절 이름의 경우 한국인 인명으로 분류된 이름만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남녀 모두 1음절과 3음절 이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자의 1음절 이름이 이 기간에 0.98%에서 1.97%로 약 2배가량 증가해서 남자 증가율(약 1.5배)보다 높았으며, 남자의 3음절 이름의 경우 0.00%(N=12)에서 0.01%(N=122)로 약 10배 정도 증가해서 여자의 증가율(약 1.5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1음절 이름은 짧고 간결해 남성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에, 3음절 이름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서 좀 더 선율적이고 여성적으로 들릴 수 있다(Oelkers 2003). 과거 남자 이름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되던 1음절 이름이 여자 이름에서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남자 3음절 이름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앞서 논의했던 이름의 중성화 현상과 사회에

17) 분석된 자료에 나타난 3음절 이름의 특징은 남녀 모두 고유어 이름이 매우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점이었다. 남자 3음절 이름은 총 166개 이름 중 92%(153개)의 이름이 고유어 이름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약 68%(654개/966개)가 고유어 이름이었다. 여자 3음절 이름은 남자 이름에 비해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그 중 '박서울', '김민하' 같이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쓴 이름과 '미나박', '유리깁' 같이 이름과 성의 순서로 쓰는 서양식 이름이 모두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이들 이름은 가족의 결속을 위해서 부와 (한국인) 모의 성을 모두 사용해 작명된 것으로 보이며 성평등적 명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서 나타나는 남녀 수평화 기조와 관련지을 수 있다.

〈표 11〉 상위 3,000위권 남녀 1음절과 3음절 이름의 비율 추이 (2010년~2021년)

성별	연도	2010-2013	2014-2017	2018-2021
	1음절	남자	1.94% (17,574)	2.48% (19,903)
여자		0.98% (8,648)	1.53% (11,915)	1.97% (10,845)
3음절	남자	0.00% (12)	0.00% (32)	0.01% (122)
	여자	0.01% (260)	0.01% (318)	0.02% (388)

4.6. 중성적 이름의 증가

중성적 이름(unisex name)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말하는데 이 표현의 정의와 개념은 학자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소 다르다. Lieberson et al.(2000)은 특정 연도에 같은 이름이 남녀 상위 200위권 안에 각각 포함되어있는 경우, 그 이름을 중성적 이름이라고 규정했다. Seguin et al.(2021)의 중성적 이름의 정의는 조금 달라서, 동일 이름 사용자 중 소수 성별의 사용자가 전체 이름 사용자의 20% 이상인 이름을 중성적 이름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미국의 작명 정보 누리집인 네임베리¹⁸⁾는 중성적 이름에 대한 여러 통계와 자료도 제공하는데, 동일 이름을 가진 사람 중 소수 성별의 사용자가 전체 이름 사용자의 10% 이상인 이름을 중성적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다(Waterhouse 2022).

〈표 12〉 연대별 중성적 이름을 가진 출생아의 비율과 앞선 연대 대비 증가율

연대	중성적 이름을 가진 출생아의 비율과 수	증가율*
1940	6.4% (157,478)	-
1950	5.5% (211,421)	-14%
1960	5.7% (301,055)	+4%
1970	9.8% (532,989)	+72%

18) <https://nameberry.com/>

1980	11.9% (564,544)	+21%
1990	15.7% (750,185)	+32%
2000	22.8% (852,796)	+45%
2010~2021	26.3% (999,997)	+15%

(*증가율은 중성적 이름을 가진 출생아의 비율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음)

국내에는 중성적 이름에 대해 본격적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중성적 이름의 정의도 아직 내려진 바 없다. 본 연구는 각 연도의 상위 500위권 이름을 대상으로 동일한 이름이 남녀에 사용되고 다수 사용 성별과 소수 사용 성별 간 사용비가 10:1(비율로 하면 10%) 이상이 되는 경우¹⁹⁾를 잠정적으로 중성적 이름으로 분류했다. 중성적 이름의 시기별 사용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1940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거 인명 자료를 최근 자료에 추가해서 분석하였다.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40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상위 500위권 이름 중에서 각주 19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중성적 이름을 판명하고 이들 이름으로 명명된 남아와 여아의 합을 구하였다. 그다음 이들 중성적 이름을 가진 남녀 출생아의 수를 10년 단위로 합한 다음, 다시 이 수치가 각 10년의 총 출생아 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를 분석하였다(<표 12> 참조). 단 2020년과 2021년의 자료는 예외적으로 2010년대와 묶어 분석하였다.

중성적 이름은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다가, 197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다. 1980년대에는 중성적 이름의 비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전체 이름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중성적 이름을 좀 더 엄격히, 예를 들어 다수 사용 성별과 소수 사용 성별 간 사용비를 10:2(20%) 이상 혹은 10:3(30%) 이상으로 정하면 중성적 이름의 비율은 줄겠지만, 이 경우에도 중성적 이름의 증가 추세는 동일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예를 들어, 2021년 등록된 이름 가운데 ‘로운’이라고 명명된 남아는 1,243명이고 여아는 63명인데, 여자 이름의 비율이 남자 이름의 10%(124명) 미만이므로 ‘로운’은 중성적 이름이 아닌 남아 이름으로 분류된다. 같은 해 ‘우주’의 경우, 남아는 1,040명이고 여아는 156명이어서 여아 수가 남아 수의 10%(104명)보다 많으므로 ‘우주’라는 이름은 중성적 이름으로 분류되었다.

국내에서 1970년대부터 중성적 이름이 증가하는 현상은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려는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국내외의 성평등적 사회 기류와 관련지을 수 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는 미국과 유럽에서 여성 해방 운동이 시작된 시기이며 미국에서도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중성적 이름이 증가하기 시작했다(Lieberson et al. 2000; O'Neill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운동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서두원 2012),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화되면서 중성적 이름이 증가하였을 거라고 생각된다. 또한, 1990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국가의 사회 구조가 변했는데(구자혁 2013), 개인주의가 부상하고 사회가 수평화되고 성평등사상이 확산되면서 성 구분을 드러내는 이름보다 중성적 이름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Barry & Harper(2014: 21)는 미국에서 중성적 이름이 증가한 요인 하나는 사회적 힘과 권력에서 우위인 남자의 이름을 부모가 (남자와 같은 지위를 갖기를 희망하며) 여아에 지어주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이 국내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과 맺음말

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21년까지 12년간에 걸쳐 출생 신고된 한국인 이름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인 이름의 특징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한국인 남녀 이름의 동명 빈도를 조사한 결과 남자 이름으로 가장 선호되는 이름은 '서준, 민준, 도운'이며, 여자 이름의 경우 '서윤, 서연, 지우'가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

둘째, 남녀 이름의 첫 글자와 끝 글자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남녀 이름 모두 첫 글자로 '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이름 끝 글자로는 '준'과 '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여자 이름의 끝 글자는 '은'과

‘아’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이름의 음절 구조를 조사한 결과 공통으로 나타난 특징은 남녀 이름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구조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음+모음+자음’의 구조는 급격하게 줄어 음절 구조가 단순해지고 있다.

넷째, 이름의 음절말 자음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남자 이름은 ‘ㄱ, ㄴ, ㄷ, ㅁ, ㅂ, ㅇ, ㅊ’이, 그리고 여자 이름에는 ‘ㄴ, ㄷ, ㅁ, ㅇ’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절말 자음으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ㄴ’으로 남녀 모두 7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남녀 이름 모두에서 ‘ㄷ’과 ‘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공명 자음이지만 ‘ㅇ’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섯째, 남녀 이름의 음절수를 비교한 결과 1음절 이름은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3음절 이름은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남녀 이름 모두 1음절 이름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자 1음절 이름이 최근 2배가량 증가해서 여자 이름을 지을 때 간결하고 중성적인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남녀 이름 중 중성적 이름의 비율 추이를 조사한 결과, 1940년대에 전체 이름의 6.4%였던 비율이 2010년~2021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이름의 26.3%로 증가했다. 여성운동과 성평등 사상 그리고 개인주의의 확산이 중성적 이름을 증가시킨 요인들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의 이름이 음운적으로 점차 간결화하고 중성화하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 추세는 비단 본 연구가 점검한 시기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사회음운적 현상으로 생각된다. 간결화는 남녀 이름의 음절 중 개음절이 느는 현상과 음절말 자음의 유형이 유성 공명음으로 단순화되는 현상에서 발견된다. 간결화 현상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과거 세대와 달리 듣기 좋고 부르기 쉬운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중성화 현상은 남녀 이름의 음운적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먼저 남자 이름의 음절 구조와 음절말 자음의 유형이 여자 이름과 비슷해지는 현상을 들 수 있고, 여성에서 1음절 이름, 남성에서 3음절 이름이 각각 다른 성별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중성적 이름이 증가

하는 추세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이름의 이러한 중성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이름의 음운적 성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자료의 성격상 이름의 어종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한국인 인명의 어종 분석과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성적 이름의 분석에 있어서 이 유형의 이름을 사용하는 남녀의 비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중성적 이름은 어떤 음운적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름 표본을 토대로 한국인 이름 명명의 최근 경향과 특징을 사회명명학적(socio-onomastic) 측면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성적 이름의 추이를 계량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사람의 이름은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특성이 늘 변한다. 이 관점에서 인명은 사회언어학의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희숙·양명희·박동근(2012), <해방 이후 한국인 이름의 특성 및 변천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어문연구》 73, 33-60, 어문연구학회. Kang, H. S., Yang, M. H., & Park, D. G. (2012). A sociolinguistic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trends of post-World War II Korean names. *Journal of the Research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73, 33-60.
- 구자혁(2013), <현대성의 개성화, 탈분화 과정으로서의 소셜 미디어의 부상: 정보화로 의 사회변동과 정치적 '소비자'의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과학논총》 15, 27-56,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Koo, J. H. (2013). The rise of social media as the process of personalization and of dedifferentiation in modernity. *Journal of Social Science*, 15, 27-56.

- 김문창(1991), <고유어식 사람 이름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1), 76-103, 국립국어원. Kim, M. C. (1991). On native Korean names. *New Living with the Korean Language*, 1(1), 76-103.
- 나은미(2003), <인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11, 95-118, 한국사회언어학회. Na, E. M. (2003). A sociolinguistic study of personal nam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1, 95-118.
- 문금현(2003), <고유어 이름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66, 119-149, 한국국어교육학회. Moon, G. H. (2003). A study of personal names made of native Korean words. *The Academ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66, 119-149.
- 법무부(2023),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18~’22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2023년 5월 15일 검색. Ministry of Justice. (2023). The number of residing foreigners by year (‘18~’22).
- 서두원(2012), <젠더 제도화의 결과와 한국 여성운동의 동학>, 《아세아연구》 55(1), 162-19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Suh, D. W. (2012). Consequences of gender institutionalization and dynamics of Korean women’s movements.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5(1), 162-192.
- 양명희(2012), <인명의 특징과 그에 대한 언어 태도 연구: 서울, 광주, 목포 거주 고등학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5, 239-266, 한국어학회. Yang, M. H. (2012). A Sociolinguistic study on the names of Koreans and Koreans’ language attitude toward the name. *Korean Linguistics*, 55, 239-266
- 정경일(2019), 《한국인의 이름》, 글누림. Jung, K. I. (2019). *Koreans’ Names*. Geulnurim.
- 채서영(2004), <한국인의 영어 이름 사용실태와 작명 방식 변화에 대한 영어의 영향>, 《사회언어학》 12(2), 261-278, 한국사회언어학회. Chae, S. Y. (2004). Use of English names and changes in Korean naming convention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2(2), 261-278.
- 한연주(1994), 현대 한국인명의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an, Y. J. (1994). *A study of modern Koreans’ na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 Ackermann, T., & Zimmer, C. (2021). The sound of gender—correlations of name phonology

- and gender across languages. *Linguistics*, 59(4), 1143–1177.
- Barry III, H., & Harper, A. S. (2014). Unisex names for babies born in Pennsylvania 1990–2010. *Names*, 62(1), 13–22.
- Crystal, D. (1993). What's in a name, Bob? *English Today*, 9(4), 53–54.
- He, K. (2020). Long-term sociolinguistics trends and phonological patterns of American names. *Proceedings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5(1), 616–622.
- Kawahara, S., Noto, A., & Kumagai, G. (2018). Sound symbolic patterns in Pokemon Names. *Phonetica*, 75(3), 219–244.
- Kürschner, S. (2018). Von Helga und Björn zu Sara und Aron: Der neueste Wandel isländischer Rufnamen im Vergleich mit dem Deutschen. [From Helga and Björn to Sara and Aron: The new change in Icelandic names] In S. Hubert, L. Rohrbach, & S. Kürschner (Eds.), *Deutsch-isländische Beziehungen: Festschrift für Hubert Seelow zum 70. Geburtstag* (pp. 301–312). Nordeuropa-Institut der Humboldt-Universität.
- Lieberson, S., Dumais, S., & Baumann, S. (2000). The instability of androgynous names: The symbolic maintenance of gender bounda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5), 1249–1287.
- Loveday, L. (2013). Five innovative strategies in Japanese female anthroponyms today.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nomastics "Name and Naming": Onomastics in Contemporary Public Space, Baia Mare [Romania]*, 560–574.
- Ohala, J. (2004). Sound symbolism. *Encyclopedia of Slavic Languages and Linguistics Online*. <https://linguistics.berkeley.edu/~ohala/papers/SEOULA-symbolism.pdf>.
- O'Neill, J. (2015). The baby name trend that's on the rise. Yahoo News. <https://www.yahoo.com/news/the-baby-name-trend-thats-on-the-rise-122188015612.html?guc-counter>.
- Öelkers, S. (2003). *Naming gender. Empirische untersuchungen zur phonologischen struktur von vornamen im Deutschen* [Empirical research on phonological structure of names in German]. Peter Lang.
- Seguin, C., Julien, C., & Zhang, Y. (2021). The instability of androgynous names: Dynamics

of gendered naming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1880–2016. *Poetics*, 85, 1–16.
Waterhouse, E. (2022). Unisex baby names: But are they really?
<https://nameberry.com/blog/unisex-baby-names-or-are-they-really>.

[참고 웹사이트]

법원 행정 정보 공개 <http://open.scourt.go.kr>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아기이름검색분석 <http://baby-name.kr>

<http://babynames.com/unisex-names>

<http://nameberry.com/unisex-names>

<http://www.babycenter.com/baby-names>

<http://www.pampers.com/en-us/pregnancy/baby-names>

<http://thebump.com/baby-names>